

#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

박서영<sup>1</sup>, 홍송이<sup>2\*</sup>

<sup>1</sup>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sup>2</sup>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The Effect of Worker'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 Focusing on Baby-boomers

Seo-Young Park<sup>1</sup>, Song-Iee Hong<sup>2\*</sup>

<sup>1</sup>Shing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istant Professor

<sup>2</sup>Dongguk University, Dept. of Buddhist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은퇴 전 한국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유형별 소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중심형, 사회생활중심형, 주거생활중심형, 고급소비중심형의 4가지 유형이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소비유형과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특히 사회생활중심형 소비유형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중심형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을수록, 장애진단을 받을수록,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낮은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부정적일 때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베이비부머를 위한 특화된 노후준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소비유형,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 우울, 잠재프로파일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structure th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their effects on depression among the employed baby-boomers who were born in 1955 to in 1963. We used the 5th wave of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in 2013 (n=2,585). The Latent Profile Analysis(LPA) estimated the empirical patterns of consumption and then a multiple regression analyzed the effect of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The LPA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ption patterns consist of four groups: Basic life-oriented class, Social life-oriented class, Home-based lifestyle class, and Advanced consumption-oriented class. The working baby boomers' depr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ir consumption patterns. Specifically, the social life-oriented class showed significantly lower depression than the basic life-oriented class and advanced consumption-oriented class. Other associates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were found as lower education, having no spouse, lower self-rated health, higher levels of physical limitation, having a diagnosed disability, lower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lower income, and lower subjective economic statu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need for specialized financial intervention better for baby-boomers' retirement preparation in Korea.

**Key Words** : Consumption Pattern, Work Participation, Depression, Baby-boomer, Latent Profile Analysis(LPA)

\*본 논문은 박서영(2017)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ong-Iee Hong(songiee25@dongguk.edu)

Received December 1, 2017

Revised January 2, 2018

Accepted January 20,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 1. 서론

한국의 베이비부머<sup>1)</sup>는 우울하다. 약 80%가 넘는 베이비부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용근로자가 23%로 고용불안은 여전하다[1].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빨라진 은퇴로 인해 베이비부머는 심리사회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국가성장의 수혜를 받은 베이비부머가 가장 부유한 세대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모두 헌신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은퇴 이전부터 은퇴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세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연령대가 현재 베이비부머이다[2]. 이러한 한국 베이비부머의 특수한 상황과 심각한 한국 노인빈곤율<sup>2)</sup>과 자살률<sup>3)</sup>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사회노년학에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연구하는데 있어, 노인들의 경제상황의 영향력은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은퇴 후 경제상황의 변화 역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증적으로 경제상황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4].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소득을 주요 지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노년기 소득의 감소는 다수의 노인들이 은퇴와 함께 경험하는 예정된 사실이며, 실제로 소득의 차이가 소비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5], 소득만으로 경제적 상황을 사정하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소비는 근본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받는 사실이나 실제로 소득과 달리 가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6]. 더구나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4%이며, 이들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소비행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9]. 특히 베이비부머 세

대는 과거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고학력, 경제력, 다양한 관심영역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의 소비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향후 본격적인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자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의 형태는 라이프 스타일처럼 잘 변화하지 않는다[10]. 따라서 은퇴 전 후의 소득 감소를 고려한 보다 전략적인 소비 형태를 유지하는 계획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노후의 소비에 주목하면서 소득만으로 노년기 경제상황의 영향을 분석해 온 기존의 논문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은퇴 전 베이비부머의 소비가 그들의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노인의 정신건강과 경제상태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특히 경제적 활동이 우울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11, 12]. 물론 경제적 활동이 반드시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들[13, 14]도 있으나, 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비자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상당수(80.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로인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기가 불충분하다. 이에 경제상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인 시도들은 소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5, 6, 9]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15-17]의 소득에 한정된 경제수준 측정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실태, 소비의 유형화 도출 및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찾는데 집중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탐색적 수준의 소비 연구들의 시도를 확장하여, 경제활동 중인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소비유형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약 728만 명이며, 연평균 출생자가 현재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이 되는 대규모 인구집단이다.

2)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로, 이는 OECD 평균의 3.8배에 해당하는 것이다[7].

3) 노인 자살자는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25.2%를 차지하며, OECD 평균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67~74세는 16.3명, 75세 이상은 1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81.8명, 160.4명이었다[8].

## 2. 이론적 배경

### 2.1 베이비부머의 우울과 소비 영향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연령대는 현재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50대로, 베이비부머의 경우 실패투어인 부모 부양과 오포세대인 자녀 양육에 대해 모두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2],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생계유지가 안 되는 베이비부머가 상당수<sup>4)</sup>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18]. 현재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이전부터 은퇴 이후를 걱정하고,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변화,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상실감 등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울은 노년기의 심각한 정신질환 중 하나이며, 특히 노년기 우울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19]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상태 요인에 집중하여 우울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Tracy 외[20]는 경제적 문제가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했고, 박미진[21]은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22, 23]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우울과 연계성이 높은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경제상태와 우울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때 소득보다 소비가 더 유용하다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24-26].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노인은 공적 수혜자라는 인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다는 인식 때문에 노인의 소비와 우울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가 되고, 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상황을 사정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5] 최근 들어 사회복

지학 분야에서 소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성준모[28]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비가 우울의 변화요인임을 검증하였으며, 박지효 외[29]의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이 많은 노인은 우울과 삶의 질 모두 높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고령으로 인해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Christiani 외[30]는 소비지출과 우울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Nurit 외[31]는 노인의 소비수준이 부정적 일수록 우울이 심화된다고 주장하였다. Ardington와 Casel[32]는 낮은 소비수준과 우울의 관련성을 설명하였고, Hanandita와 Tampubolon[33]는 낮은 가구지출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Costa 외[34]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가구지출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김혜경 외[35]는 노인의 소비는 우울에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였고, 엄아람[36]의 연구에서는 소비는 우울과 관련이 없으며 다만 연구대상과 연구시점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가 개인의 복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표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와 우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베이비부머의 우울과 소비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재 베이비부머인 중년기의 우울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로서 미래의 노년기를 만족스럽게 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 상태를 알 수 있는 소득과 소비를 모두 측정하며, 특히 소비의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비 유형 구조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 2.2 베이비부머의 소비와 소비유형

현재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와 노년기 각각의 소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50대에 해당하는 중년기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이, 과거의 중년과 현재의 중년은 소비가치와 노년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37].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4) 공적연금 가입률이 69.7%, 퇴직연금 가입률이 17.7%, 개인연금 가입률이 43.6%에 불과하며, 82.1%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에 41.0%는 주택을 축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7].

노년기 소비생활 역시 기존 노년기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소비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38] 현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소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이들의 소비생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50대를 대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소비자 연구가 시작되었고[39], 2010년 이후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복고’라는 주요 소비의 흐름이 상품화되는 문화현상이 발견되었다[40]. 생활양식에 따라 소비의 가치와 소비생활이 달라진다는 김하나[41]의 연구를 비롯하여 현재의 새로운 중년들은 기존의 중년과 차별화된 소비행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존 노년층과도 차별화된 소비자라는 연구[42]가 발표되었다.

노년기 소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중년기 소비연구와 마찬가지로 노년기의 소비 역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년기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년기 소비 전망에 관해 경향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소비 연구의 경향은 각각의 소비항목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소비 유형화를 구조화하는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에 관한 박서영과 홍송이의 연구[43]는 군집분석을 이용한 기존의 소비 유형화 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5가지의 소비유형(기초생활중심형, 균형소비생활형, 사회생활중심형, 여가생활중심형, 교육비중심형)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이지영과 김도성[17]은 베이비부머의 소비 유형을 균형지출형, 교육비지출중심형, 주거비지출중심형, 교통비지출중심형, 식료품비지출중심형, 보건의료비지출중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시월과 조향숙의 연구[44]에서는 50세 이상 1인 가구들의 소비 유형이 식비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중심형, 보건의료비중심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의 노인 또는 노인을 포함한 장년기 소비 유형 연구들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소비항목에 균등한 소비 지출을 보이는 균형소비생활형 집단과 특정한 항목에 집중하여 과도한 소비의 불균형을 보이는 집단들이 구조화 되었다. 후자의 경우를 주목해보면, 특정 항목의 집중된 소비는 교육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비를 제외하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생활과 의료비용이었다. 즉 한국의 노년기 소비 유형이 기본 생활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의 다양성이 측정되고 있지 않았다. 소비와 삶의 만족은 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유형과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은퇴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박서영과 홍송이의 연구[43]는 소비유형이 은퇴 노인들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비에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은퇴 노인 집단의 우울수준이 다른 집단들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였음을 밝힘으로써, 노년기 소비유형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은퇴 후 노인들의 소비유형을 개선하는 것은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은퇴 후 소득의 상실을 고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거나 은퇴 후 삶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과는 개입의 효과성 차원에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의 형태는 생애주기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화하기 힘든 항상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소비는 단순한 총액의 경제적 규모보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지출항목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그 소비자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5].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의 규모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소비 형태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 형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은퇴를 준비하는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화된 소비패턴이 그들의 우울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은퇴 전 보다 바람직한 소비패턴을 양성할 수 있는 은퇴 준비 프로그램의 실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본 논문의 독립변인인 소비 즉 경제적 측면 외에, 우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46, 47], 인구사회,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관계, 경제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과 우울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인구사회적 요인과 우울의 관계

를 살펴보면,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수준이 높다는 연구[48, 49]가 일반적이었고,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증가하면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4]와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3]가 공존하고 있다. 학력과 관련하여 낮은 교육수준과 높은 우울수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50, 51], 종교가 있는 경우 우울수준이 낮다는 연구[52, 53]가 있다. 건강상태 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혹은 객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밀접한 관계임을 밝힌 다수의 연구[11, 49, 51, 54]가 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55], 신체활동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관련있다는 연구[54-56]들이 있다.

가족관계 요인과 관련하여, Wang 외[57]는 가족관련 요인이 우울 발병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고민석 외[58]는 우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관련 자원이 부정적 반응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우울 유병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59], 배우자가 있으면 우울수준이 낮다고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48, 60]. 자녀동거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 유병율이 낮다는 연구[59]와 우울수준이 높다는 연구[61]가 있다. 또한 성준모[28]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이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하였다. 사회관계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 및 이웃관계가 우울의 영향요인임을 밝힌 연구[62]가 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생활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가시설 이용과 여가몰입 인식 정도[63], 여가의 횟수와 즐거움[64], 여가생활 자체[65]가 우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도록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5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자료 중에서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2,585명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평생 근로경험이 없는 131명을 제외한 후, 은퇴하지 않은 경제활동 베이비부머 2,0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2 변수측정

##### 3.2.1 종속변수: 우울

우울 측정을 위해 우울척도인 CES-D의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모든 문항은 0~3점으로 측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20개 항목의 내적일관성은 0.88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3.2.2 독립변수: 소비유형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소비지출 항목 구성은 식비, 담배주류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가구가사비, 교육비, 기타소비(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대출이자상환, 생활보조금, 각종 세급, 사회보험료, 각종부담금 및 벌과금) 등 12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은 연간 지출액(천원)으로 조사되어 다른 항목과 같이 월평균 지출액(천원)으로 재코딩하였다. 모든 소비항목의 지출 유무를 먼저 확인한 후 지출이 없으면 지출액을 0원으로, 지출이 있으면 세목별 지출의 합을 구한 후 로그변환을 취하고 '1분위는 1, 2분위는 2, 3분위는 3, 그리고 4분위는 4'로 재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소비유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유형을 더미화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3.2.3 통제변수: 인구사회, 건강상태, 사회관계, 가족관계, 경제상태 요인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기능 제한, 장애진단), 가족관계 요인(동거가족, 자녀의 수, 가족관계만족도), 사회관계 요인(종교활동 참여, 대인관계만족도, 여가활동만족도), 그리고 경제상태 요인(소득, 주관적 경제상태)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 3.3 자료분석방법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Mplus 7.3 프로그램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응답자간의 유사한 응답 성향을 파악한 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는 집단을 발견하는 탐색적 분석 방법이며 혼합모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소비유형 지표는 소비액의 자연로그 값에 대해 1부터 4까지(하~상)

서열변수로 재구성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합성을 향상시켰다. 최적의 잠재집단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잠재집단 개수를 한 개씩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탐색적 과정을 실행하고, 다양한 모델 적합성 준거들을 활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 적합도 지수<sup>5)</sup>인 AIC, BIC, SABIC, 로그우도, MLR, VMLR 테스트와 엔트로피<sup>6)</sup>의 값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버전을 사용하여  $\chi^2$ -test,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of Control Variables

| variable                                     | Operational definition   |
|--|--|
| sex  | 0) female 1) male  |
| age  | western age  |
| education                                    | 1) no edu 2) elementary 3) middle 4) high 5) college or more   |
| marital status                               | 0) no spouse 1) spouse   |
| self-rated health                            |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
| physical limitation                          | 0) no 1) yes   |
| diagnosed disability                         | 0) no 1) yes   |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1) 1 2) 2 3) 3 4) 4 or more  |
| number of children                           | 0) 0 1) 1 2) 2 3) 3 or more  |
|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
| religious activities                         | 0) no religion 1) never in a year 2) once a year 3) several times a year 4) once a month 5) several times a month 6) once a week 7) several times a week   |
|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 Sum of averages on Frie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br>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
| satisfaction with leisure                    |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
| income                                       | Sum of Earnings before last year, Financial income, Real estate income,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ther Income<br>1)First quartile(25%) 2)Second quartile(50%) 3)Third quartile(75%) 4)Forth Quartile(100%) |
|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 1) very bad 2) bad 3) average 4) good 5) very good   |

- 5) AIC, BIC, SABIC, Log likelihood는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 MLR과 VMLR 테스트는 k-1 개 모델과 k개 모델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다[66].  
6) 잠재집단 간의 분류의 집약성을 의미하는 Entropy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집약도가 높아 모델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67].

## 4. 연구결과

### 4.1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2,034명)의 경우 남성 61.3%, 여성 38.7%로,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정도 많았고, 평균연령은 53.4세였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베이비부머가 전체의 61.8%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86.3%, 배우자가 없는 경우 13.7%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부머의 70.8%가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가 각각 1.4%, 3.2%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동거 가족 수는 3.15명이었고 자녀의 수는 평균 1.97명이었으며 69.0%가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가 없는 경우가 70.1%, 종교가 있는 경우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는 4.0%에 불과하였다. 반면 대인관계만족도와 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하여 각각 49.3%, 40.3%의 베이비부머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4,970만원이었고 35.3%의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22.5%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우울수준은 평균 6.51점이었고 우울위험군<sup>7)</sup>은 9.3%(188명)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지출액의 경우, 식비 70.5만원, 담배주류비가 10.5만원, 주거비는 12.5만원, 광열수도비 15.4만원, 피복비 11만원, 교통통신비가 50.5만원, 문화생활비는 7.9만원, 보건의료비 16.3만원, 가구가사비 4.2만원, 교육비가 33.6만원, 기타소비는 38.7만원, 그리고 비소비지출이 6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베이비부머는 식비, 비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주거비, 피복비, 담배주류비, 문화생활비, 가구가사비의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2 소비유형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적합도 지수와 엔트로피 지수를 분석한 결과(<Table 2> 참조), 최종적으로 4개 집단모형이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가장 적합하게 유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총 60점 만점에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상태 즉, 우울위험군으로 판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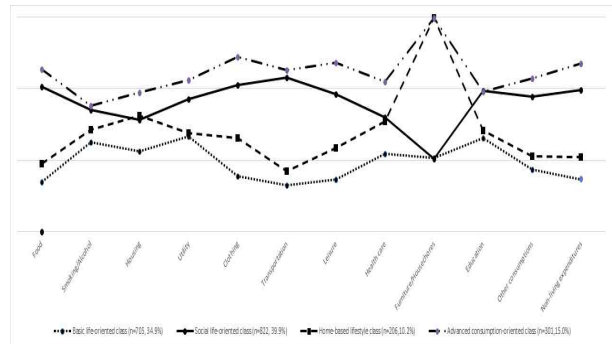
<Table 2> Model fits of Latent profile analysis (n=2,034)

|   | Log likelihood | Entropy     | VLMR test    | LMR test     | AIC          | BIC          | SABIC        |
|---|----------------|-------------|--------------|--------------|--------------|--------------|--------------|
| 1 | -36224         | -           | -            | -            | 72497        | 72632        | 72556        |
| 2 | -33476         | .990        | .0014        | .0015        | 67026        | 67234        | 67116        |
| 3 | -32326         | .894        | .0000        | .0000        | 64753        | 65634        | 64875        |
| 4 | <b>-31855</b>  | <b>.901</b> | <b>.0000</b> | <b>.0000</b> | <b>63836</b> | <b>64190</b> | <b>63990</b> |
| 5 | -31628         | .844        | .2238        | .2260        | 63409        | 63836        | 63594        |

[Fig. 1]은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의한 소비유형 결과를 보여주며, 각 유형별 소비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별 명명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중심형(잠재집단1)의 경우,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기타 소비, 비소비지출은 2분위에, 그리고 나머지 소비항목은 3분위 수준이었고 특히 모든 소비항목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소비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34.9%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사회생활중심형(잠재집단2)의 경우,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가 4분위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소비항목들은 3분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의 소비가 높은 점은 사회생활 참여와 관련된 비용이며, 응답자의 39.9%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주거생활중심형(잠재집단3)에서는 식비, 교통통신비는 2분위에 해당하고, 가구가사비가 4분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소비항목은 모두 3분위에 해당하였는데, 가구가사비의 지출이 많고 교통통신비와 식비 수준이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생활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10.2%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고급소비중심형(잠재집단4)은 담배, 주류비, 주거비, 교육비가 3분위이고 나머지 소비항목은 모두 4분위에 해당하였는데 모든 소비항목에서 타 유형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았다. 특히 교육비와 주거비가 낮고 가구가사비, 피복비, 문화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가 생활의 집중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응답자의 15.0%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소비항목별로 소비유형간 차이를 살펴 보면, 피복비의 경우 4 유형간 각각의 그룹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고, 비교적 문화생활비의 그룹 간 차이도 뚜렷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비의 수준 차이가 2 유형으로 분류되는 항목들도 발견되었는데, 식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등이 이러한 특징을 보였다. 그 외에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은 전반적으로 3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가구가사비는 극명

하게 소비의 수준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격차가 가장 큰 소비항목이었다.



[Fig. 1] Consumption patterns of employed baby-boomers

4.3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도출된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설명력은 20.0%였고 모형의 유의수준은 .000이었다.

<Table 3>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n=2,034)

| variable                                     | depression                                 |         |         |      |
|--|--|---------|---------|------|
|  | B  | $\beta$ | p-value |      |
| sex  | .008                                       | .001    | .971    |      |
| age  | .053                                       | .020    | .380    |      |
| education                                    | -.388                                      | -.054   | .026    |      |
| marital status                               | -1.644                                     | -.085   | .000    |      |
| self-rated health                            | -.846                                      | -.097   | .000    |      |
| physical limitation                          | 6.725                                      | .117    | .000    |      |
| diagnosed disability                         | 2.320                                      | .063    | .002    |      |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027                                      | -.005   | .133    |      |
| number of children                           | .007                                       | .001    | .974    |      |
|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 -.392                                      | -.041   | .133    |      |
| religious activities                         | -.038                                      | -.011   | .620    |      |
|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 -.489                                      | -.047   | .110    |      |
| satisfaction with leisure                    | -1.094                                     | -.125   | .000    |      |
| income                                       | -.382                                      | -.064   | .017    |      |
|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 -1.058                                     | -.140   | .000    |      |
| consumption pattern                          | basic life oriented <sup>a</sup>           | .838    | .061    | .029 |
|  | home based lifestyle <sup>a</sup>          | .528    | .024    | .290 |
|  | advanced consumption oriented <sup>a</sup> | 1.247   | .067    | .003 |

\*\*\* p<.001, \*\* p<.01, \* p<.05, Reference group: social life oriented class(consumption pattern)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소비 유형은 그들의 우울수준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중심형을 준거<sup>8)</sup>로 한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기초생활중심형이 사회생활중심형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beta=.061, p=.029$ ). 또한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고급소비중심형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증가했다( $\beta=.067, p=.003$ ). 이는 기초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중심형으로 소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우울수준이 사회생활중심형 소비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하게 주거생활중심형은 사회생활중심형과 비교하여 우울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통제변인들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교육수준( $\beta=-.054, p=.026$ )이 낮은 경우, 배우자( $\beta=-.085, p=.000$ )가 없을 경우 우울수준이 높을 것으로 검증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beta=-.097, p=.000$ )가 좋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고, 신체기능에 제한( $\beta=.117, p=.000$ )이 있는 경우, 장애 진단( $\beta=.063, p=.000$ )이 있는 경우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가족의 수가 적은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으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여가활동만족도( $\beta=-.125, p=.000$ )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종교활동 참여와 대인관계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beta=-.064, p=.019$ )이 낮으면, 주관적 경제상태( $\beta=-.140, p=.000$ )가 부정적이면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 5.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구조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유형의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우울수준을 측정하여 이 두 개념사이의 유의미한 개연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

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유의미한 논의를 상술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의 경우 우울위험군(우울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분류된 대상이 9.3%였고, 우울점수는 평균 6.5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산업화된 국가의 노인 우울 출현율이 11.2~13.3%인 것[68]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은퇴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이 9.93인 것[43]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베이비부머 우울수준의 차이가 클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설계한 소비유형의 분석 결과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형태를 4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하였다: 사회생활중심형(39.9%), 기초생활중심형(34.9%), 고급소비중심형(15.0%), 주거생활중심형(10.2%). 특히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의 소비수준이 높은 사회생활중심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으며 주로 기초생활 중심으로 한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유형의 구성원들의 특징은 소득과 주관적 경제 상태가 가장 낮아 베이비부머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계층은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 증감폭 역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5]. 이에 추후 소비의 중단적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중심형의 소득 변동에 따른 소비 변화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학술적 근거이다.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기초생활중심형의 우울수준이 높았고, 흥미롭게도 사회생활중심형보다 고급소비중심형의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의 유형으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된 사회생활중심형이 전형적인 경제생활 베이비부머의 소비 형태와 비교하여, 기초생활중심형처럼 전반적인 소비수준이 낮거나 전반적으로 소비수준이 매우 높은

8)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 중 사회생활중심형이 4가지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을 할 경우 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높은 사회생활중심형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생활중심형을 준거로 하였다.



경우(고급소비중심형)가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소비수준이 단순히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결과이다. 실제로 오히려 과도한 소비지출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9)가 존재하며, 과잉소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미국에는 ‘어플루엔자(affluenza)’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으며, 무분별한 소비욕구에 반응하는 현대인의 물질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의 해소법으로 충동구매나 습관적 쇼핑 등이 감정 소비행위로서 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한다(70). 또한 소비수준이 높다고 소비행위에 대한 만족도가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비수준 자체 보다 소비행위에 대한 자기평가, 소비동기 등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얼마를 지출하는가보다 현재의 소비행위에 만족하는지, 소비를 유발시키는 동기는 무엇인지 등 소비수준과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적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 시사점을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경제 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득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비수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들만 존재하며 소비행위와 동기 등 심층적인 소비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특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수준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의 주요관점인 소득의 영향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유형을 구조화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개별소비유형의 특징은 소득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비유형에 따른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의 차이가 매우 분명한 집단들은 예상대로 기초생활유형과 고급소비중심형으로 소득과 경제수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은 비슷하지만 소비유형의 뚜렷한 상이성을 보이는 사회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중심형도 분류되었다. 즉 소비가 소득의 영향을 받지만 소비 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영향으로 인하여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게 되며, 이는 소득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소비에 대한 사정이 필요한 집단으로 기초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중심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에 대한 구성원 프로파일 정보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소비 형

태로써의 개입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유용성이 크다. 다만 이차자료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소비행위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포함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고급소비와 과잉소비의 명확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소비중심 자료 수집을 통해서 소비항목과 소비해위 설명변수들의 보완이 되어야 한다.

기타 유의미한 요인들을 설명하자면,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기능 제한, 장애진단, 여가활동만족도,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46, 47, 74)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거가족, 자녀의 수, 가족관계만족도, 종교활동참여, 대인관계만족도 등의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인 경제활동 참여 베이비부머들이 향후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경제활동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고, 건강상태의 경우 70.8%가 양호하고, 신체기능제한은 1.4%, 장애진단은 3.2%로 나타나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의 소비는 소득의 83.0%로, 소득의 차이와 소비의 차이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김학주(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경제상태에 관해서는 35.3%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간 평균소득 4,970만원의 의미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국민의 평균소득 2,970만원(2013년 기준)보다는 높지만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수준의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나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추정할 수도 있다. 베이비부머의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개념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은 주로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있었고,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베이비부머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종교가 있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는 각각 4.0%, 3.5%에 불과하였

다. 즉 베이비부머들의 가족관계보다 대인관계, 여가활동, 종교생활 등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혹은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심도 있는 사정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유형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횡단연구의 한계로 사실상 두 개념 사이의 원인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부적절하다.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소비유형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활동참여 베이비부머를 분석대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은퇴’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은퇴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므로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분은퇴 베이비부머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생애 최장기 일자리 은퇴 후 가교일자리 종사자가 전체 노인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71]를 고려하여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분은퇴 베이비부머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유형을 소비행위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소비동기와 소비행위평가 등에 관한 정보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 5.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이 그들의 우울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둘째,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셋째, 경제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소득중심 연구에 보완이 될 수 있는 소비 변수를 추가하여 노인복지연구의 영역 확장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에 차이가 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5, 72]를 고려하여 향후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 베이비부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시급하다.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예방하는 것이 검증된 바[73],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 및 자살 출현율이 가장 높아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정적 자문과 상담을 시도하는 새로운 시각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라이프 스타일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소비유형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은 소득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소비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측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실천적으로 소비수준이 낮은 기초생활중심형의 우울수준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은퇴 이후 수입 감소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예측하고 소비규모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무 설계 컨설팅 및 관련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원교육 현황을 보면, 전체 실시한 교육 중 2% 정도만 노인, 어린이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소비자원교육이 실시되어 소비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영역의 소비교육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사자의 은퇴 후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자원을 투자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 은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중소기업청의 재무컨설팅 및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 마련의 근거를 소득중심에서 소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중용된 관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소비관점에서 기초생활중심형의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을 통제된 상황에서 소비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수입 및 수급액의 증가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유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개인별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최저생계비라는 제도를 통해 사실상 취약계층의 소비를 엄두에 둔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므로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소비 교육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소비와 지출형태에 관한 기초조사, 사정, 계획, 실행 및 관리, 평가 등 전반적인 사례관리 체계 속에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베이비부머 소비 연구의 이론적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베이비부머를 표적대상으로 한 은퇴 전과 은퇴 후 소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 REFERENCE

- [1]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014", 201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 [2] T. H. Kim, "Suicide rate OECD 1st place ..80% experience depression", News 1, 2016. 9. 1.
- [3] B. K. Kim, Y. J. Ha, S. S. Choi, "A Vertical Study on the Factors Which are Influenced on Depression of the Aged: Focusing o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4, No.1, pp.115-132, 2014.
- [4] M. Green, & M. Benzeval, "Ageing, social class and common mental disorders: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ree cohorts in the West of Scotland". Psychological Medicine, Vol.41, pp.565-574, 2011.
- [5] H. J. Kim, "Consumption Inequality of the Elderly vs. Non-elderly Household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2, No.4, pp.141-161, 2006.
- [6] S. C. Lee, "Consumption Pattern and Stability of Economic Welfare of Low Income Household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5, No.3, pp.317-336, 2009.
- [7] OECD, "OECD Economics Surveys: KOREA", 2004.
- [8]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ions", 2009.
- [9] K. W. Yoo, I. J. Seo, "The Effects of Retirement on Middle and old aged Households Chan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12, No.2, pp.19-38, 2016.
- [10] M. 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ew Brunswick,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11] H. Hsu, & B. Jones, "Multiple trajectories of successful aging of older and younger cohorts". The Gerontologist, Vol.52, No.6, pp.843-856, 2012.
- [12] K. Choi, R. Stewart, & M. Dewey, "Participation in productive activities and depression among older Europeans: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28, pp.1157-1165, 2013.
- [13] M. A. Oh, "Policy Issue of Elderly Welfare Spending for Alleviating the Elderly Poverty Rat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96, pp.25-35, 2013.
- [14] Y. Li, L. Xu, I. Chi, & P. Guo, "Participation in productive activities and health outcomes among older adults in urban China". The Gerontologist, Vol.54, No.5, pp.784-796, 2013.
- [15] J. Y. Lee, D. S. Kim, "A Study of Baby Boomers'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Expenditure Patterns Compared with thos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59, pp.323-346, 2015.
- [16] J. Banks, R. Blundell, P. Levell, & J. Smith, "Life-cycle consumption patterns at older ages in the US and the UK: Can medical expenditures explain the Differenc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5. <https://www.ifs.org.uk/publications/7662>
- [17] A. Kalwij, R. Alessie, J. Gardner, & A. Ali, "Inflation experiences of retiree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2016. <https://doi.org/10.1017/S1474747216000202>
- [18] E. Y. Baek, "Determinant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7, No.2, pp.357-383, 2011.
- [19] H. J. Jun, M. Y. Kim,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Longitudinal Effect of Employment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4, No.2, pp.315-331, 2014.
- [20] M. Tracy, F. Zimmerman, S. Galea, E. McCauley, & A. Stoep, "What explains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overty and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42, pp.1163-1175, 2008.
- [21] M. J. Park,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upport Network Types on Life Satisfaction Comparison between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and the Elderly Not Living in Poverty",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40, No.1, pp.207-233, 2012.
- [22] H. Imai, W. Chen, E. Fukutomi, K. Okumiya, T. Wada, R. Sakamoto, M. Fujisawa, Y. Ishimoto, Y. Kimura, C. Chang, & K. Matsubayashi, "Depression and subjective economy among elderly people in Asian communities:

- Japan, Taiwan, and Korea".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60, No.2, pp.322-327, 2015.
- [23] S. Sun, J. Chen, M. Johannesson, P. Kind, & K. Burström,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association with subjective health status, age, sex, reg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Chinese population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7, No.2, pp.833-873, 2016.
- [24] B. Meyer, & J. Sullivan, "Consumption and income poverty over the business cycle".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32, pp.51-82, 2011.
- [25] E. Wolff, A. Zacharias, & T. Masterson, "Trends in american living standards and inequality, 1959-2007".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58, No.2, pp.197-232, 2012.
- [26] A. Lusardi,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in older adults". *Generations*, Vol.36, No.2, pp.25-32, 2012.
- [2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A Study of Policies and Surveys on Baby Boom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 [28] J. M. Sung, "Effects of Family and Household's Economic Factors on Depression: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Fixed-Effect Model",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4, No.2, pp.207-228, 2013.
- [29] J. Y. Park, Y. S. Bang, B. Y. Son, "Study of Health Percep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Using Home-Care Service - Focused on North Gwangju Area",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9, No.2, pp. 303-312, 2015.
- [30] Y. Christiani, J. Byles, M. Tavener, & P. Dugdale, "Socioeconomic related inequality in depression among young and middle-adult women in Indonesia's major cit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82, pp. 76-81, 2015.
- [31] G. Nurit, P. Dana, & P. Yuval, "Predictors of psychotherapy Use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ith depressive symptoms". *Clinical Gerontologist*, Vol.39, No.2, pp.127-138, 2016.
- [32] C. Ardington, & A. Case, "Interac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in the south african national income dynamics study". *Tydskr Stud Ekon*, Vol.34, No.3, pp.69-85, 2010.
- [33] W. Hanandita, & G. Tampubolon, "Does poverty reduce mental health? An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113, pp.59-67, 2014.
- [34] G. Costa, M. Marra, & S. Salmaso, "Health indicators in the time of crisis in Italy". *Epidemiologia e prevenzione*, Vol.36, No.6, pp.337-366, 2012.
- [35] H. K. Kim, J. M. Sung, "The Longitudinal Factors related to the Depression of the Korean Elderly: Comparison of younger-old and older-ol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166, pp. 427-449, 2014.
- [36] A. R. Eom,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2012.
- [37] J. W. Choi, "Study on Pursuing Clothing Image and Clothing Purchase Activity according to Ego Identity and Subjective Age of New Middle-Aged Women",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 [38] G. H. Han, S. E. Yoon, "Articles : Critical Review of Discourse on Aging in Korean Newspap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7, No.2, pp.299-322, 2007.
- [39] J. Tréguer, "50+ marketing: Marketing, communicating and selling to the over 50s gener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2.
- [40] C. S. Choi, "A study on jacket making according to design preference analysis for Korean baby-boom generation wome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2.
- [41] H. N. Kim, "Life Style With Consumer Values and Consumer Behaviors of Baby-Boom Gene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42] Y. H. Lee, "A study on the presence of active seniors in Korea and their consumption behavior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5.
- [43] S. Y. Park, S. I. Hong, "The Effect of Baby-boomer Retirees'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7, No.2, pp.349-368, 2017.
- [44] S. W. Kim, H. S. Cho,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Single Households",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 No.3, pp.89-118, 2015.
- [45] H. I. Oh, "A Study on the trend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equality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Using the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 Survey Data from 2003 to 2010-",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46] E. Messias, W. Eaton, & A. Grooms,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prevalence across the United States: An ecological study". *Psychiatric Services*, Vol.62, No.7, pp.710-712, 2011.
- [47] J. Joormann, & M. Quinn, "Cognitive processes and

- emotion regulation in depression". *Depress Anxiety*. Vol.31, pp.308-315, 2014.
- [48] S. K. Kahng, "Does Depression Predict Suicide?: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1, No.2, pp.67-100, 2010.
- [49] M. Kuchibhatla, G. Fillenbaum, C. Hybels, & D. Blazer, "Trajectory classes of depressive symptoms in a community sample of older adult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Vol.125, pp.492-501, 2012.
- [50] R. Cortes, C. Fleming, W. Mason, & R. Catalano, "Risk factors linking maternal depressed mood to growth in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17, No.1, pp.49-64, 2009.
- [51] J. Liang, X. Xu, & A. Quinones, "Multipl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and late life: Racial/ethnic variations". *Psychology and Aging*, Vol.26, No.4, pp.761-777, 2011.
- [52] J. H. Seomun,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Depression/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Church Social Work*, Vol.12, pp.67-95, 2010.
- [53] E. Brown, C. Caldwell, & T. Antonucci, "Religiosity as a moderator of family conflic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frican american and white young grandmothe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18, No.4, pp.397-413, 2008.
- [54] H. Chang-Quani, Z. Xue-Mei, D. Bi-Rongi, L. Zhen-Chan, Y. Ji-Rongi, & L. Qing-Xiu, "Health status and risk for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A meta-analysis of published literature". *Age and Ageing*, Vol.39, pp.23-30, 2010.
- [55] H. Tanaka, Y. Sasazawa, S. Suzuki, M. Nakazawa, & H. Koyama, "Health status and lifestyle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in middle-aged and elderly Japanese adults: A seven-year follow-up of the Komo-Ise cohort study". *BMC Psychiatry*, Vol.11, pp.1-10, 2011.
- [56] C. H. Shin, "The Study on Effects of Objective Life Attributes on Depression of Elderly Mediated by Life-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0, No.2, pp.453-469, 2010.
- [57] J. Wang, N. Schmitz, & C. Dewa,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risk of major depression: The canadian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Journal of Epidemiological Community Health*, Vol.64, pp.447-452, 2010.
- [58] M. S. Ko, I. K. Seo, "Influences of the Elderly's Health Status upon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Vol.37, No.1, pp.1-14, 2011.
- [59] J. H. Park, J. H. Cheong,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 Medi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47, pp.309-330, 2010.
- [60] V. Carayanni, C. Stylianopoulou, G. Koulierakis, F. Babatsikou, & C. Koutis,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Are older women more vulnerable than men in social risk factors? The case of open care centers for older people in Greece".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9, No.2, pp.177-186, 2012.
- [61] D. Carol, D. Wendy, M. Beverly, & S. Kathy, "Poverty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Vol.22, No.1, pp.23-32, 2009.
- [62] E. J. Kim, S. Y. Lee, "The Informal Social Support Patterns and Depression in Rural Elders: Compared to Urban Elder",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8, No.2, pp.149-176, 2012.
- [63] C. O. Kim, "The Effect of Leisure Commitment to the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With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Welfare practice*, Vol.26, No.2, pp.78-99, 2014.
- [64] M. Márquez-González, A. Losada, K. Rider, & B. López-Pérez, "Document Spanish validation of the California older person's pleasant events schedule(COPPES)". *Clinical Gerontologist*, Vol.37, No.2, pp.151-166, 2014.
- [65] I. Tredal, J. Soares, Ö. Sundin, E. Viitasara, M. Melchiorre, F. Torres-Gonzales, M. Stankunas, J. Lindert, E. Ioannidi-Kapolou, & H. Barros, "Alcohol use among abused and non-abused older persons aged 60-84 years: An European study". *Prevention and Policy*, Vol.20, No.2, pp.96-109, 2013.
- [66] L. Muthen, & B. Muthen, "Mplus user's guide. 7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2015.
- [67] K. Jedidi, V. Ramaswamy, & W. S. Desarbo,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Vol.58, No.3, pp.375-394, 1993.
- [68] D. Steffens, G. Fisher, K. Langa, G. Potter, & B. Plassman,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older Americans: The aging, demographics and memory stud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21, No.5, pp.879-888, 2009.
- [69] J. Graaf, D. Wann, & H. Naylor,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 Pub Group West", 2005.
- [70] G. Lipovetsky, "The Paradoxical Happiness, Ld Books

Inc”, 2008.

- [71] E. N. Ka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223, pp.48-56, 2016.
- [72] H. H. Lee, “Influential Factor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ypes of Baby Boom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0, pp.19-29, 2017.
- [73] S. H. Le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Net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i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9, pp.397-406, 2017.
- [74] S. M. Ok, H. S. Jeon, “The Effect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2, pp.599-605, 2016.

박 서 영(Park, Seo Young)

[정회원]



-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 소비, 융합, 사회복지와 영상
- E-Mail : sypark2010@shingu.ac.kr

홍 송 이(Hong, Song Iee)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1999년 3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03년 9월 : University Washington in St. Louis, George Warren Brown School of Social Work(박사)
- 2008년 7월 ~ 2016년 2월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생산적 노령화, 노인케어융합기술과 통합시스템, 종교와 노인복지
- E-Mail : songiee25@dongguk.edu